

# CONTENTS

## 서론

### PART 01

## 글을 읽는 대원칙 6

- Theme 1 수능 영어 지문의 출제 원리 7
- 소재의 선택
  - 문제의 설계
  - 수정 및 검토
- Theme 2 모든 글은 유기적이다 11
- 글의 생명력: 내부의 필연적 연결성
  - 스탠스를 향한 여정
- Theme 3 역삼각형 구조: 추상에서 구체로 16
- 개괄
  - 도입
  - 전개
  - 결론

### PART 02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다 20

- Theme 1 스탠스란 무엇인가? 21
- 스탠스의 개념
  - 왜 스탠스를 알아야 하는가
- Theme 2 역학 관계(Dynamics) 24
- 역학 관계의 개념
  - 맥락적 장치
  - 독해 절차
- Theme 3 맥락의 '층' 나누기 26
- 층의 구분

PART  
**03**

**실전 독해 도구,  
InDePTh 완전 정복**

28

Theme 1 InDePTh 표기법의 모든 것

29

Theme 2 전체 지문 분석: 실전처럼 훈련하기

30

Theme 3 심화 적용: 순서와 삽입 문제 정복하기

139

삽입

순서

PART  
**04**

**The Grand Finale :  
Final Drills**

210

Theme 1 Matador

211

문제

해설

## THEME 1

# 수능 영어 지문의 출제 원리

### “왜 한 문장도 놓치면 안 되는가?”

수능 영어 문항의 출제원리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방법 1	방법 2
소재 선정 → 원문 탐색 → 원문 선정 → 유형 선정 → 정답 선정 → 정답의 근거 작성 → 오답 선택지 구성(또는 오답의 근거 작성) → 검토 → 선택지 또는 단어 수정 → 검토 → 최종안 제출	소재 선정 → 연계교재 탐색 → 연계 대상 문항 선정 → 지문 작성 및 선택지 구성 → 정답 및 오답의 근거 작성 → 검토 → 지문 또는 선택지 수정 → 검토 → 최종안 제출

방법 2의 경우는 듣기, 내용 일치/불일치, 필자의 목적 파악, 심경 파악과 같이 기본 유형에 한정되는 편이기에 방법 1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 소재의 선택

우리가 지문에서 볼 **소재**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2028 수능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감수성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소재에 대한 배경지식은 문항 풀이에 있어 긍정적 효과(환류 효과)를 일으키되, 문항 풀이의 핵심 요소가 배경지식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다. 이때 소재는 크게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	범주	세부 내용
1	개인생활 관련	- 취미, 오락, 여행, 운동, 쇼핑 등 여가 선택에 관한 내용 - 보건, 위생, 영양 등 개인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 - 생일, 관심사, 생활 방식 등 개인 일상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 관련	- 외복, 음식, 주거 등의 의생활에 관한 내용 - 명절, 가족 행사, 집안일 등 가정 일상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 관련	-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교 활동, 교우 관계, 진로, 진학 등 학교 일상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 관련	- 일, 노동, 직업 윤리 등 근로에 관한 내용 - 서신 왕래,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활동, 면대면 대화 등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 회의, 지역 행사, 졸업, 결혼, 장례식 등 사회적 행사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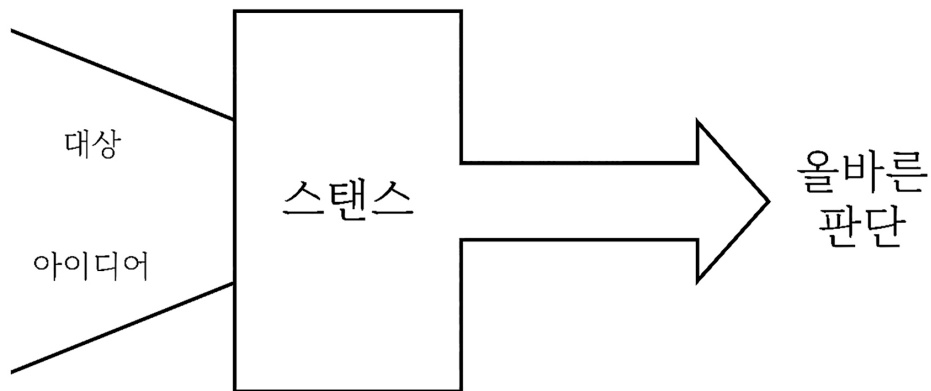
## 스탠스란 무엇인가

스탠스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계도 없이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과 같다. 글을 이해할 때 스탠스를 알고 있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Part 1에서 함께 얘기한 내용들을 Part 2에서는 더욱 구체화하여 다뤄볼 것이다.

### ■ 스탠스의 개념

**스탠스(stance)**는 필자가 특정 대상이나 아이디어를 대할 때 취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관점을 뜻한다. 이 개념을 먼저 떠올려 두면 글의 표면에 보이는 정보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다. 독자는 스탠스를 파악함으로써 글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미리 짐작할 수 있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읽어야 할지 판단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시험과 같이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선행 판단이 불필요한 되돌아 읽기를 줄이고, 중요한 단락과 문장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탠스는 **뉘앙스(nuance)**와 **의도(intention)**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뉘앙스는 특정 대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감정적 결**을 지칭한다. 관점의 수준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문장 수준에서는 칭찬이나 우려, 경계 같은 어휘 선택과 어조로 드러난다. 반면 문단 수준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 주거나 거리를 두는 서술 방식으로 나타난다. 뉘앙스를 통해 우리는 결국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필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의도는 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이성적 목표**로, 주장 제시, 개념 설명, 비교와 대조, 기존 견해에 대한 반론 제기 등과 같이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고 감정적 영역의 개입이 배제된 경우가 많다. 의도는 뉘앙스와 달리 역학 관계에서 드러나는 필자의 의도를 함축한다. 뉘앙스와 의도를 분리해서 확인한 뒤 다시 합쳐 보면, 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밀고 나가려 하는지가 선명해진다.

8.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2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Unlike the novel, short story, or play, film is not handy to study; it cannot be effectively frozen on the printed page. The novel and short story are relatively easy to study because they are written to be read. The stage play is slightly more difficult to study because it is written to be performed. But plays are printed, and because they rely heavily on the spoken word, imaginative readers can create at least a pale imitation of the experience they might have watching a performance on stage. This cannot be said of the screenplay, for a film depends greatly on visual and other nonverbal elements that are not easily expressed in writing. The screenplay requires so much filling in by our imagination that we cannot really approximate the experience of a film by reading a screenplay, and reading a screenplay is worthwhile only if we have already seen the film. Thus, most screenplays \_\_\_\_\_. [3점]

- ① rely more on the spoken word than stage plays
- ② attract a much wider readership than short stories
- ③ do share many elements with other literary genres
- ④ are popular though it requires extra effort to study them
- ⑤ are published not to be read but rather to be remembered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it speaks to very few.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frictionless so to speak; and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the fruits of science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without the use of words. But those fruits are ambivalent.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ideally,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s to non-scientists it need not, and indeed is not able to, resort to salesmanship.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it is no longer science, and the scientist becomes or has to hire a publicist who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In doing so, the scientist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thus \_\_\_\_\_  
\_\_\_\_\_. [3점]

- ①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 ②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 by associating science with mathematics
- ③ inevitably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 hostile to science
- ④ neglecting his dut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the public
- ⑤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 해설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Mathematic의 특성 2개를 설명하고 있다. 정리해주자.

수학 - 매혹할 수 있는 사람 매혹 / 과학에 대한 저항 극복 x

Science is universal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it speaks to very few.

과학의 대조되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과학과 수학의 관계가 제시되었으므로(수학은 과학에 대한 저항을 없애지 못함) 뒤에서 수학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읽어야겠다.

수학 - 매혹할 수 있는 사람 매혹 / 과학에 대한 저항 극복 x) / (과학 - 원칙상은 보편적 / 실질적으로는 소수에게만 말함

Mathematics ma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skill of the highest type, frictionless so to speak; and at the opposite pole from mathematics, the fruits of science show the practical benefits of science without the use of words.

수학과 과학의 특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이때 수학의 특성은 과학의 특성(소수에게만 말함)과 대조 관계를 띠다고 볼 수 있다.

수학 - 매혹할 수 있는 사람 매혹 / 과학에 대한 저항 극복 X) / (과학 - 원칙상은 보편적 / 실질적으로는 소수에게만 말함)  
/ (수학 -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 ↔ 과학 - 의사소통 없이 결과 보여줌

But those fruits are ambivalent.

과학이 의사소통 없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양면성이란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양면성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다른 특성이 겹치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개를 잡아보자.

수학 - 매혹할 수 있는 사람 매혹 / 과학에 대한 저항 극복 X) / (과학 - 원칙상은 보편적 / 실질적으로는 소수에게만 말함) / (수학 -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 ↔ 과학 - 의사소통 없이 결과 보여줌) → (과학의 의사소통 x 결과 - 양면적)

Science as science does not speak; ideally, all scientific concepts are mathematized when scientis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when science displays its products to non-scientists it need not, and indeed is not able to, resort to salesmanship.

과학은 과학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수학적으로 표현되며,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는 salesmanship에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때 salesmanship은 갑자기 판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의사소통과 동의어이다.

㉮ 과학이 과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수학을 쓰고 비과학자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 앞의 “Mathematics will attract those it can attract, but it will do nothing to overcome resistance to science” + “in practice it speaks to very few”를 합친 것이다. 과학은 소수(과학자)에게만 말하고, 수학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소수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이야기이다. 몰랐으면? 그냥 과학은 일반인들한테 말 안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했어도 ok이다.

수학 - 매혹할 수 있는 사람 매혹/과학에 대한 저항 극복 X) / (과학 - 원칙상은 보편적/실질적으로는 소수에게만 말함) / (수학 -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 ↔ 과학 - 의사소통 없이 결과 보여줌) → (과학의 의사소통 X 결과 - 양면적)  
→ (과학자에게 수학을 이용하여 의사소통/비과학자와는 의사소통 하지 않음)

When science speaks to others, it is no longer science, and the scientist becomes or has to hire a publicist who dilutes the exactness of mathematics.

㉮ 조건-결과 구도가 나왔다. (when~) 잡아주자.

㉮ others=non-scientists이다. 항상 앞 내용에서 언급된 대상은 잡아주도록 하자.

㉮ 과학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건은 딱하니 과학자가 일반인에게 말한다고 써져있다. 조건-결과를 고려했을 때 결과는 ‘이상 x(구체적 내용 모름)’이 될 것이다. 뒤를 보니까 과학이 아니다, 수학의 정확성을 퇴색시키는 선동가(괴벨스...)를 고용한다는 말이 있다. 이상적 X로 묶어야 하지 않을까?

과학의 의사소통 X 결과 - 양면적 → (과학자에게 수학을 이용하여 의사소통/비과학자와는 의사소통 하지 않음)  
↔ (비과학자와 의사소통 → 과학 X → 수학의 정확성 퇴색)

In doing so, the scientist reverses his drive toward mathematical exactness in favor of rhetorical vagueness and metaphor, thus \_\_\_\_\_.

㉮ 대명사만 쓰는 것이 아니다. 앞 내용을 받아줄 때는 대동사도 사용한다. 풀어주자.

㉮ 풀어주면 결국은 ‘일반인과 소통하고 수학의 정확성을 퇴색시키는 선동가를 고용~’이고, 뒤는 그것의 결과이다. thus는 ‘따라서’라는 뜻으로, 결과의 결과 느낌으로 사용되었다. 어렵다? 괜찮다. 우리에게 화살표가 있으니깐.

㉮ 과학자가 일반인과 소통하면, 수학적 정확성을 내버린다는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과학자는? 과학의 원칙(이상)을 거스른 것이 된다. 이것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과학의 의사소통 X 결과 - 양면적 → (과학자에게 수학을 이용하여 의사소통/비과학자와는 의사소통 하지 않음)  
↔ (비과학자와 의사소통 → 과학 X → 수학의 정확성 퇴색 → 과학의 이상 거스름)



① degrading his ability to use the scientific language needed for good salesmanship

㉮ 과학적 언어 사용 능력? 과학의 이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근데 그러한 능력의 감퇴? 이상으로 가는 길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상을 거스름'인데... 역학관계가 꼬였다.

② surmounting the barrier to science by associating science with mathematics

㉮ 과학을 수학과 연관시킴으로써 장벽을 높인다? 장벽=일반인들의 과학에 대한 저항이라 보면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대고, 사실은 (과학 with 수학 → 과학 거부증)이라는 관계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이다.

③ inevitably making others who are unskillful in mathematics hostile to science

㉮ 선전원을 고용(일반인들과 의사소통)했더니 과학에 대한 저항감이 심해졌다? 반대다.

④ neglecting his dut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the public

㉮ 과학과 대중 간 격차를 줄인다? 이것이 바로 이상의 파괴이다. 근데 그것을 무시?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맥락상 반대되는 말이다.

⑤ violating the code of intellectual conduct that defines him as a scientist

㉮ 과학자인 그를 과학자라 정의하는 지적 강령의 파괴? 쉽게 말해서 과학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왜? 과학의 이상을 파괴했으니까. 정답이다.

# Matador 마타도르

## ■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ecommendation engines often appear neutral because they merely “learn” from vast behaviour traces, yet scale turns guesses into norms. When an interface ranks items by predicted relevance, it does more than mirror preference; it amortizes past hesitations into your next click. Over time, exposure becomes endorsement: what is repeatedly placed within reach acquires the gloss of obviousness. The distortion is quiet; it lies less in incorrect labels than in the choreography of options. Call this second-order bias: not a bias in what the model “believes,” but in how it allocates evidence a human will meet. Personalization multiplies it. By sanding away friction, the system prunes encounters with disconfirming cases, and the user, spared inconvenience, \_\_\_\_\_. Proxies then seal the loop: location, time, and network ties deliver “similar” instances whose similarity is operational, not conceptual, narrowing the hypothesis space while preserving an illusion of abundance. Effective defence is not refusal of data but designed counterfactuals: forced diversity, rotating baselines, and periodic resets. These devices add difficulty—making deviation thinkable without making navigation impossible.

\*amortize: 분할 반영하다 \*\*sand away: 다듬다

- ① confuses convenience with truth
- ② mistakes the curated options for personal choice
- ③ gradually loses the ability to handle cognitive friction
- ④ remains unaware of the narrowing hypothesis space
- ⑤ develops a resistance to new or challenging information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ce promises objectivity by segregating method from motive, yet methods are selected, funded, and taught within worlds already saturated with value. Instruments do not simply register nature; they encode the questions their designers judged worthy and the tolerances they deemed acceptable. Peer review aspires to wash out idiosyncrasy, but its screens are woven from wprevailing exemplars of rigor, which also decide what qualifies as a phenomenon. Even statistical neutrality can smuggle commitments: a significance threshold reflects a community’s appetite for error; a loss function embodies which mistakes are bearable. None of this implies that truth reduces to politics. Rather, it suggests that inquiry is staged, like any practice, with norms about what seeing properly requires. The remedy is not cynicism but reflexivity: making the scaffolding inspectable, multiplying perspectives where stakes concentrate, and auditing how categories travel from lab to law to marketplace. Objectivity, then, is less a view from nowhere than a disciplined negotiation among somewheres, where procedures earn authority by surviving encounters with rival vantage points instead of pretending not to have one.

\*smuggle: 몰래 싣다 \*\*scaffold: 비계(飛階)

- ① Science Between Politics and Neutrality
- ② Why Pure Objectivity Remains Elusive
- ③ Value-Laden Practices Behind Objectivity
- ④ The Hidden Politics of Statistics
- ⑤ Peer Review as Scientific Gatekeeper

## ■ 해설

### # 1

Recommendation engines often appear neutral because they merely "learn" from vast behaviour traces, yet scale turns guesses into norms.

추천 엔진은 방대한 행동 흔적을 '학습'할 뿐이라며 종종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추정이 곧 규범이 된다.

- 문단을 여는 이 문장은 추천 엔진의 겉보기 중립성이 규모 효과에서 무너진다고 제시한다. 핵심은 많이 쓰일수록 추정이 사실상의 규범으로 굳어진다는 점이다.

When an interface ranks items by predicted relevance, it does more than mirror preference; it amortizes past hesitations into your next click.

인터페이스가 예측된 관련도로 항목을 매기면, 단순히 취향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머뭇거림을 다음 클릭에 분할 반영한다.

- 앞의 '규범화'가 인터페이스 정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핵심은 과거의 미세한 주저까지 신호로 환산되어 다음 선택에 누적된다는 점이다.

Over time, exposure becomes endorsement: what is repeatedly placed within reach acquires the gloss of obviousness.

시간이 지나면 노출이 곧 승인으로 바뀐다. 손 닿는 곳에 반복해서 놓이면, 그것은 자명해 보이는 광택을 얻는다.

- 누적 반영의 결과가 시간 흐름에서 어떤 심리 효과로 굳는지 설명한다. 핵심은 반복 노출이 '당연함의 후광'을 만든다는 점이다.

The distortion is quiet; it lies less in incorrect labels than in the choreography of options.

왜곡은 조용히 일어난다. 잘못된 이름보다는 선택지의 연출과 배치에서 생긴다.

- 왜곡이 라벨 오류가 아니라 배치·연출에서 생김을 드러낸다. 핵심은 옵션의 순서·위치·가시성이 판단을 비튼다는 점이다.

Call this second-order bias: not a bias in what the model "believes," but in how it allocates evidence a human will meet.

이를 2차 편향이라고 부른다. 이 편향은 모델이 무엇을 '믿는가'에서 생기지 않으며,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얼마나 보여 주는지와 같이 노출을 나누는 방식에서 생긴다.

- 편향의 초점을 모델 안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얼마나 보여 주는지로 맞추어, 논의를 '노출 설계' 문제로 보이게 한다.

Personalization multiplies it.

개인화는 이 편향을 증폭시킨다.

- 방금 정의한 편향이 언제 커지는지 밝힌다. 핵심은 개인화가 노출 분포를 더 좁혀 효과를 키운다는 점이다.

By sanding away friction, the system prunes encounters with disconfirming cases, and the user, spared inconvenience, confuses convenience with truth.

마찰을 매끈하게 없애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반증 사례와의 만남을 가지치기하고, 불편이 줄어든 사용자는 편의와 진실을 혼동한다.

- 개인화의 증폭을 UX 마찰 제거 맥락으로 풀어낸다. 핵심은 반례 접촉이 줄고 '편의=진실'의 오인이 생긴다는 점이다.

Proxies then seal the loop: location, time, and network ties deliver "similar" instances whose similarity is operational, not conceptual, narrowing the hypothesis space while preserving an illusion of abundance.

이어 프록시 변수가 고리를 완성한다. 위치·시간·연결 관계가 '유사한' 사례를 가져오지만, 그 유사성은 개념적이라기보다 운영상의 기준일 뿐이라서, 풍부해 보이는 착시를 유지한 채 가설 공간을 좁힌다.

- 프록시 변수가 폐회로를 완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핵심은 표면 다양성은 유지되지만 탐색 가설 공간은 축소된다는 점이다.